



패기넘치는 뮤지션들의 기량 겨루기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시민 예술촌 앞 개복동 예술의 거리에서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에서 활동하는 버스커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강자를 가리는 '버스커즈 인 군산(시즌4)'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열정 가득 찬 청년들의 무한한 문화예술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으며 지역민에게는 청년문화의 새로운 볼거리로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민예술촌 주최
'버스커즈 인 군산'
13일부터 이틀간
군산 개복동 예술거리서
우승자에게 시상금 지급**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총 20팀이 13일 오후2시부터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에서 자유 버스킹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탑 8이 선정되며 14일 오후2시부터 본선무대인 중앙로 공영주차장(청소년광장)에서 기량을 겨루어 전국 최고의 버스커즈를 뽑게 된다. 최고의 버스커에게는 대상 300만원을 포함해 총 5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또 다른 즐길거리로 개복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창작품,

군산시민의 아바바, 공예인들의 공예품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플리마켓도 함께 진행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역량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젊음과 도전의 버스커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실력과 음악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공연의 장이 될 것이며 생기 넘치는 군산 도시문화 형성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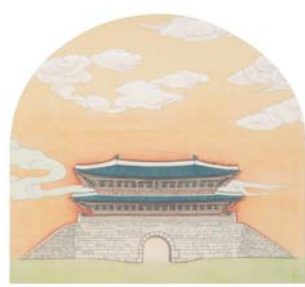
올 전주비빔밥축제 슬로건 선정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29일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7 전주비빔밥축제'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비벼봐 신나게, 즐겨봐 맛나게!'를 선정했다. 조직위는 이번 슬로건 공모에는 총 806건이 응모, 2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종 슬로건이 선정됨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2017전주비빔밥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전주비빔밥을 비롯한 전주 음식이 함께 어우러져 비벼지는 축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디자인과 전주의 대표 음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의 주제와 내용을 이미지로 살려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작품이면 출품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당선작 1편에 대해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 홈페이지(<http://www.bibimbapfes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치밀하게 공든 '공필화'의 모든 것

(사)문화연구원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항미)은 '꽃바람' 기획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공필화'라는 공통분모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철·정선아 부부 작가의 전으로, 동양화 전통기법으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공필화'는 세밀하게 묘사하여 공을 들여 그리는 그림을 이르는 말로, 수묵화보다 대변되는 중국 남종화와 대비되는 북종화 계열의 그림이다. 치밀하게 공을 들여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리기 때문에 '공치화'라고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중기를 대표하는 화풍이었으며, 대표작으로는 안견의 문유도원도와 조선시대 초상화 작품들이 전해진다. 공필화는 연한 담채를 이용해 수십 번의 붓질로 하나하나 색을 쌓아가며 완성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며, 비단이나 종이 등의 곁에 따라 그림을 그려 투명하지만 깊이 있는 작품이 완성된다. 박 작가는 원광대 순수미술학부 한국화과를 졸업하고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전공 졸업 후 중국 천진미술학원 국화과에서 공필중채인물화 연구생을 졸업했다. 두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전주어린박물관에서 진행된 여진 복원 작업에 참여했다. 정 작가는 강원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 후 중국 천진미술학원 국화과 화조화전공 연구생을 졸업했다. 개인전 2



박종철 '송례문'



정선아 '여름'

문화연구원 전주부채문화관
박종철 부부 '꽃바람' 기획초대전

무형유산원, 내일 '아카이브 운영방안' 학술대회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무형유산 자료 수집과 아카이브 운영 방안'을 주제로 오는 12일 오후 1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록물의 제작·보존·관리·활용 등 광범위한 아카이브의 범주 가운데 '무형유산 자료수집'과 '아카이브의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국내외 무형유산 자료수집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이재필 국립무형유산원 과장은 유산원의 아카이브 경험과 향후 정책 방안을, 임경택 전북대 교수는 일본의 무형유산 아카이브의 현황과 점검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철남 충남대 교수는 자료의 활용과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선행해야 할 저작권 확보 방안을 조명한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허용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무형유산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쇄미록' 번역사업 최종 선정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국립진주박물관의 임진왜란자료 국역사업 '쇄미록' 번역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 당시의 피난일기인 오희문(1539~1613)의 쇄미록을 도서 발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쇄미록은 보물 제1006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의 대표적 기록물이다. 총 7책 분량의 필사본으로 오희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다시 돌아온 1601년 2월 27일까지 총 9년 3개월간의 일기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에 관한 실상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음식·제사·질병·민간요법·상업 활동·유언비어 등 당시의 사회 제도와 풍습은 물론 생활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이 높은 사료다. '쇄미록'은 지난 1900년 처음 문중에서 국역본이 간행됐다. 하지만 가독성 문제와 기존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재번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사업은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알기 쉬운 현대어로 재번역 함으로써, 전문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역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정해은 기자



쇄미록

동학기념재단, 13일 창작 국악극 선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승우, 이하 기념재단)은 제50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연계하여 오는 13일(토) 오후 3시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대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주제 창작 국악극 '여인,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출가 및 소리꾼 등이 참여하여 기존 동학농민혁명 주제의 작품들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농민군의 아내이자 전쟁을 몸소 체험했던 한 여인의 애절한 삶을 주제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현대적 의미를 국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 시제품 생산
- 기술, 정보제공
-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 창업기업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첨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상황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

※ 본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복합신소재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전라북도 | ECO융합섬유연구원